□원 저□

J Korean Matern Child Health 2025;29(4):211-217
DOI: https://doi.org/10.21896/jkmch.2025.29.4.211
eISSN 3022-8549

초저출산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은유에 관한 고찰: 대학생의 태도와 수용성 분석

이주희[1] · 김인혜[2] · 이철주[3] · 이경주[2,4,*]

[1]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보건정책, [2]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 [3]고려대학교 공공감사연구센터, [4]동작구보건소

Social Perceptions and Policy Metaphors of Unmarried Motherhood Amid Ultralow Fertility: A Study of Student Attitudes and Acceptability

Joo Hee Lee[1] · Inhye Kim[2] · Cheoul-Joo Lee[3] · Kyung Ju Lee[2,4,*]

[1]*Department of Program in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Department of Women's Rehabilitation,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Seoul, Korea*
[3]*Center for Public Audit Studie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4]*Dongjak-gu Public Health Center, Seoul,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etaphorical framing of Korean policies pertaining to unmarried mothers amid ultralow fertility. It examined how these metaphors, along with public perception, influence healthcare policy direction and acceptance, with the aim of identifying gaps between social perception and policy support and providing insights for policy development.

Methods: A mixed-methods approach was adopted, combining qualitative policy metaphor analysis and quantitative text mining. Policy documents—including the 2025 Comprehensive Guide to Single-Parent Family Welfare Services—were analyzed using Lakoff and Johnson's conceptual metaphor theory and Bacchi's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approach. Responses from an open-ended survey of 69 university students was analyzed using Python 3.13 and KoNLPy. Analytical techniques included keyword frequency analysis, 2-g co-occurrence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using the KNU Korean Sentiment Dictionary.

Results: The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structural imbalances: healthcare support accounted for only 18.6% of total policy measures, with just 1.4% specifically targeting unmarried mothers. Three dominant metaphorical frames of unmarried mothers emerged: protection (framing them as vulnerable subjects), risk (portraying them as social threats), and beneficiary (positioning them as passive welfare recipients). Text mining analysis revealed predominantly negative sentiments (59.42%) in initial perceptions but relatively high support (53.62%) for policy proposals, highlighting a significant gap between perception and policy acceptability.

Conclusion: Current policy frameworks consider unmarried mothers as passive recipients, resulting in their significantly limited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compared to married mothers. This perception–policy gap underscores the need to reframe policies toward a rights-based approach that prioritizes health equity and reproductive autonomy.

Key Words: Unmarried mothers, Policy metaphors, Student perception, Policy acceptability, Text mining

*Corresponding Author: Kyung Ju Lee
Public Health Center, 80, Manyang-ro 3-gil, Dongjak-gu, Seoul 06925, Korea
Tel: +82-2-820-1421, Fax: +82-2-828-4345, Email: drlkj4094@gmail.com
Received: June 5, 2025; Revised: August 12, 2025; Accepted: September 12, 2025
https://orcid.org/0000-0003-4655-1521

Copyright©2025 b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로 자리 잡았다(Jang, 2023;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Statistics Korea, 2024). 이러한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사회 ·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제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기혼 여성과 전통적 가족 형태를 전제로 설계되어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Byun & Han, 2023; Ha & Moon, 2007; Hwang et al., 2016; Lim & Choi, 2019;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20).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미혼모와 같은 비전형적 가족에 대한 배제를 낳으며, 실제 출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평균 혼인 외 출생률이 40.7%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5%에 불과하다(OECD, 2021). 이는 혼인 외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문화적 낙인뿐만 아니라 미혼모 출산을 억제하는 구조적 정책 공백을 반영한다(OECD, 2011).

'미혼모(unmarried mother)'는 법령상 공식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혼인 없이 임신 · 출산 · 양육을 경험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사회적 표현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Kang et al., 2019; Lee, 20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5) 그러나 한국 사회는 미혼모를 오랫동안 도덕적 일탈이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이는 정책 설계와 서비스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Ha et al., 2020; Lee & Cho, 2009a; Lee & Cho, 2009b). 실제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정책 중 보건의료 영역은 18.6%, 이 중 미혼모를 단독 대상으로 한 정책은 1.4%에 불과하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5) (Table 1). 이러한 제한성은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혼모는 부실한 건강관리, 열악한 출산 환경, 공공기관 내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다(Byun et al., 2019; Lee, 2018; Lee et al., 2018; Lee et al., 2014).

정책 문서에서는 미혼모를 '보호시설 입소 대상', '위기임신 여성', '취약계층'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립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혼모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 또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는 것이다(Jeong, 2014; Jung, 2024; Lee, 1998). Lakoff와 Johnson (2003)은 언어가 사고방식과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Stone (2012), 역시 정책 언어가 문제 정의와 제도 설계 전반에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프레이밍은 미혼모를 주체적 존재가 아닌 통제와 개입의 대상으로 만들고, 결국 사회적 낙인과 정책 배제를 강화한다(Ingram & Schneider, 1993; Kim, 2024; Kim et al., 2018).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미혼모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공적 지원 요청 자체를 기피하게 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악순환을 낳는다(Kim, 2000; Kim et al., 2006; Kim & Ko, 2004; Seong et al., 201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권을 단순한 의료 이용이 아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유엔 역시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을 강조하고 있다(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994). 하지만 국내 현실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며, 미혼모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구성되고 있다(Kim & Ahn, 2009; Seo, 2010; Seo et al., 2010).

이러한 정책 담론을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혼모를 정책 대상이 아닌 시민적 주체로 재구성하는 것은 건강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

Table 1. Classification of single-parent family welfare services

Support area	Total items	Unmarried mother–specific items	Proportion (%)	Specialization rate (%)
Economic support	22	0	31.4	0
Healthcare support	13	1	18.6	7.7
Childcare support	12	0	17.1	0
Legal support	9	2	12.9	22.2
Educational support	7	1	10.0	14.3
Housing support	4	1	5.7	25.0
Employment support	3	0	4.3	0
Total	70	5	100	7.1

 https://doi.org/10.21896/jkmch.2025.29.4.211

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를 둘러싼 정책 언어와 사회적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정책 문서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을 분석하고,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사회적 인식과 정책 수용성 간의 간극을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미혼모를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하기 위한 정책 언어의 전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미혼모에 대한 정책 언어와 사회 인식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정책 은유 분석과 정량적 언어 분석을 병행한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s design)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론이 사회 인식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사회 인식이 다시 정책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정책은유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문서를 포함한다. 이들 문서는 미혼모 정책의 방향성과 언어적 구조를 반영하는 공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회 인식 조사는 2025년 4월 고려대학교 재학생 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미혼모에 대한 첫 인상', '부정적 인식의 원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주요 문항에 대한 수기 응답을 수집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미혼모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은유적 구성과 사회적 인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 정책 문서와 일반 대중의 인식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분석 자료는 「2025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5)를 포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문서를 활용하였으며, 사회 인식 분석을 위해 2025년 4월 고려대학교 재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방형 설문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성적 텍스트 분석과 정량적 언어 분석을 병행한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s design)에 기반한다. 정책은유 분석에는 Lakoff와 Johnson (2003)의 개념 은유 이론과 Bacchi (2009)의 문제정의 접근(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WPR)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다. 정책 문서에 나타난 미혼모 관련 표현들을 전수 수집하고, 이를 '보호의 대상', '위험요인', '복지 수혜자', '권리의 주체' 네 가지 은유 유형으로 분류하여 문제 정의와 정책 설계의 연결 방식을 분석하였다.

사회 인식 분석은 설문 응답에 대한 정량적 언어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개방형 응답은 형태소 분석과 불용어 제거를 통해 정제한 후, 세 가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어 빈도분석은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핵심 어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었고, 2-gram 분석은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쌍을 식별하여 단어 간의 공통 출현 패턴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긍정, 부정, 중립 응답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감성분석은 KNU 감성사전을 활용하였다. 각 분석은 문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항 간 응답 내용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모든 분석은 Python 3.13.3 버전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3.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국립재활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NRC-2024-04-017)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 익명성, 자료 기밀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민감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절차, 자료 이용 범위에 대해 사전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처리되었으며,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였다.

결 과

1. 정책 은유 분석: 한국 미혼모 정책의 언어 구조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분석 결과, 전체 70개 정책 중 경제적 지원 정책이 22건(3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보건의료 정책은 13건(18.6%)에 불과했으며, 이 중 미혼모를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5건(7.1%),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1건(1.4%)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구성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미혼모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이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Table 1). 정책 문서에서 미혼모는 주로 '보호시설 입소', '위기임신', '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표현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각각 보호의 대상, 위험 요인, 복지 수혜자라는 은유적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보호 은유는 자율성 제한과 격리형 서비스의 정당화 근거를, 위험 은유는 통제와 낙인의 정당화 논리를, 수혜자 은유는 조건부 지원과 접근성 제한을 함의한다(Table 2).

2. 정량적 언어 분석: 사회적 인식의 복합적 구조

1) 미혼모에 대한 첫 인상

고려대학교 재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부정적' (50.7%)이 가장 높은 키워드였고, 이어 '사회적' (20.3%), '사람' (18.8%), '아이' (15.9%) 등이 나타났다. 2-gram 분석에서는 '사회적 약자', '부정적 인식', '결혼 안 한다' 등이 도출되었고, 감성 분석 결과 부정 감성이 59.42%로 우세했다.

2) 부정적 인식의 원인

핵심 키워드는 '가족' (44.9%), '아이' (42.0%), '사회적' (31.9%)이었으며, 2-gram에서는 '정상 가족', '가족 형태', '전통적 가족'이 반복되었다. 원인은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34.8%), 경제적 부담(28.6%), 개인 책임론(21.7%), 종교 · 도덕 규범(14.9%)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개인적 편견과 정책 수용성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3) 저출산 정책과의 연관성

정책 제안 문항에서 주요 키워드는 '출생' (58.0%), '인식' (50.7%), '지원' (47.8%)이었고, 감성 분석에서는 긍정 감성이 53.62%로 가장 높았다. 제안 내용은 사회 인식 개선(41.4%), 경제 지원 확대(31.9%), 보육 · 교육 지원(26.1%), 건강 · 의료 서비스 제공(18.8%)으로 나타났다.

4) 인식과 정책 수용성 간의 차이

첫 인상(Q1)과 인식 원인(Q2) 문항에서는 부정 감성이 각각 59.42%, 65.22%였으나, 정책 제안(Q3)에서는 긍정 감성이 53.62%로 전환되었다. 이는 도덕적 판단과 정책적 수용성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Table 3).

3. 정책 언어와 사회 인식의 상호작용

정책 문서에 나타난 보호, 위험, 수혜 은유는 사회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사회적 약자', '문제 존재', '지원 대상' 등의 표현과 대응되며, 정책 언어와 사회 인식 간에는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덕적 판단과 정책 수용성 간의 분리,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의 불일치, 이상과 현실의 간극 등으로 이어

Table 2. Metaphor types in healthcare policies for unmarried mothers and policy outcomes

Metaphor type	Key expressions	Problem representation (WPR)	Policy design characteristics	Healthcare accessibility	Policy limitations
Protection metaphor	Admission to protective facilities, securing safety, vulnerable group	Unmarried mothers are viewed as individuals requiring protection	Institution-centered, segregated services	Limited	Lack of community-integrated services
Risk metaphor	Crisis pregnancy, social burden, problem group	Unmarried mothers are viewed as social and economic risk factors	Prevention- and control-oriented	Selective	Perpetuated stigma and erosion of health rights
Recipient metaphor	Aid recipient, welfare service user	Unmarried mothers are viewed as welfare recipients	Income/age-based eligibility	Conditional	Barriers to universal access and equity

Adapted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 document analysis. 2025.
WPR,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https://doi.org/10.21896/jkmch.2025.29.4.211

Table 3. Analysis results of social perception toward unmarried mothers (n=69)

Question	Most frequent keywords (n)	Key 2-grams (n)	Sentiment analysis
Q1: First impressions of unmarried mothers	Negative (35), social (14), person (13), child (11)	Social minorities (6), negative perception (5)	Negative 59.42%, neutral 24.64%, positive 15.94%
Q2: Perceived causes of negative views toward unmarried mothers	Family (31), child (29), social (22), marriage (20)	Family structure (8), normal family (6), traditional family (5)	Negative 65.22%, positive 23.19%, neutral 11.59%
Q3: Implications for low fertility rate policies	Birth (40), perception (35), support (33), childbirth (29)	Family structure (13), diverse families (12), social perception (10)	Positive 53.62%, negative 23.19%, neutral 23.19%

Open-ended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morpheme analysis, stopword removal, word frequency analysis, 2-g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based on the KNU Sentiment Lexicon).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Python version 3.13.3.

지며, 사회적 저항 없이 수용 가능한 정책 설계 전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 찰

이 연구는 한국 미혼모 보건의료정책의 담론 구조와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 언어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 문서 분석 결과, '보호의 대상', '위험 요인', '복지 수혜자'라는 은유적 표현들이 미혼모를 수동적 개입과 통제의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acchi의 WPR 접근법에 따르면 이러한 은유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배제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정량적 언어 분석에서도 '정상 가족', '사회적 약자' 등의 빈도 높은 표현이 전통적 가족주의 담론의 지속적 영향력을 보여주며, 정책 언어와 사회 인식이 상호 강화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식 조사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 부정 감정과 정책 수용성 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편, 긍정 감성 비율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공감은 권리 기반 접근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개인 책임론은 여전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 정책의 언어는 '사회적 약자' 담론을 넘어 건강권, 재생산권, 시민권에 기반한 언어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전략과 연계해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미혼모를 건강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지닌 시민적 주체로 재정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대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 문서의 언어체계 재설계와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제도 정비는 궁극적으로 권리 기반의 출산 친화적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 미혼모를 둘러싼 정책 언어와 사회 인식이 상호작용하며 낙인을 재생산함을 보여주었다. 정책 문서는 미혼모를 수동적 존재로 은유하며 보건의료 정책 접근성을 제한했고, 사회 인식과 정책 수용성 간의 간극도 확인되었다. 이는 미혼모를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은유의 전환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그 방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감사의 글 및 알림(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임업진흥원(산림청)의 재원으로 수행된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 중 '산림치유자원 활용 보건의료 융합 산림치유(숲태교 등)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RS-2024-00404406)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이 논문은 한국모자보건학회의 제7회 미래모자보건학자상 수상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ORCID

Joo Hee Lee: 0000-0002-8962-4535
Inhye Kim: 0000-0002-0599-5081
Cheoul-Joo Lee: 0000-0001-8113-6716
Kyung Ju Lee: 0000-0003-4655-1521

REFERENCES

Bacchi C. Analysing policy: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Frenchs Forest: Pearson Education; 2009.

Byun SJ, Han SH. Monitoring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 low fertility.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 Policy document 2023-02.

Byun SJ, Kim YG, Choi IS, Kim JY, Choi SJ, Kim HJ. Characteristics and policy challenges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mong unmarried mother families.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Research Report 2019-20.

Ha JS, Kim JS, Hwang KR. A study of facility-oriented unmarried mother support services. Korean J Qual Res Soc Welf 2020;14:95-119.

Ha YH, Moon MJ. Strategic choice and effects of policy instruments according to changes in policy goals: focusing on Korea's population policy. J Gov Stud 2007;13:75-106.

Hwang NH, Kim KR, Bae HW, Lee SH, Mason A. Study on mid- to long-term fertility rate target level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low fertility policies.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Research Report 2016-15).

Ingram H, Schneider AL. Constructing citizenship: the subtle messages of policy design. Policy Sci 1993;26:213-31.

Jang IS. Major issues and tasks related to low fertility policy respons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 (Issue & Focus No. 434).

Jeong YW.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for unmarried mot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gshin University; 2014.

Jung J.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ed Birth Act in Korea. Women's Health Nursing 2024;30:101-6.

Kang RH, Park JR, Hwang SI. A study on life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living in community. J Life-span Stud 2019;9:95-113. https://doi.org/10.30528/jolss.2019.9.3.006.

Kim H, Ahn S. Korean attitudes toward unmarried parents and adoption. In: Improving social awareness and support measures for unwed mothers.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p.1-40.

Kim GK, Ko HJ. The effects of prenatal education on unwed mothers' knowledge about delivery, postpartum care, and anxiety. Korean J Health Res 2004;30:13-23.

Kim JH. Exhibition planning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master's thesis]. Seoul (Korea): Department of Visual Design, Hongik University; 2024.

Kim YG. Nursing needs of unmarried mothers regar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health: Based on Roy's adaptation model [master's thesis]. Chuncheon (Korea):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2000.

Kim YK, Cho AJ, Roh CR. A study on social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nvironment for unmarried mothers.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Research Report 2006-22-2.

Kim YM, Kim EJ, Jang MK. Effects of adaptive flexibility 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mong adolescent mother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ejudice. J Youth Welf 2018;20:189-217.

Lakoff G,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Lee MJ. Support measures for unmarried mothers during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

Lee MJ. The realities of unmarried mother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ir self-reliance.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60th Forum Report.

Lee MJ, Cho YS. Social neglect of unmarried mother families and intercountry adoption. Gender Rev 2009a;(Summer):1-18.

Lee MJ, Cho YS. The treatment of unmarried mothers in Korean society and international adoption. Gender Rev 2009b;(Fall):1-19.

Lee MJ, Jeong JY, Koo MY, Jung SY, Kim HJ, Park JS. Support measures for unmarried mothers during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 Research Report 2018-14.

Lee SR, Lim JY, Lee EJ, Cho YT, Ra CR. 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preconception and prenatal health care for unmarried women: focusing on OB-GYN use and improvement of the internet use environment.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Joint Research Series of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4-60-02.

Lee SS. The rising issue of unwed mothers and policy directions. Health Welf Forum 1998;11:54-61.

Lim H, Choi JW. Expert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low fertility policy. Sejong (Korea):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5 Comprehensive guide to single-parent family welfare services. Seoul (Korea): MOGEF; 2025.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Population crisis response strategy (3): low fertility countermeasures. Seoul (Korea): NABO; 202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Paris: OECD Publishing; 201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Family database: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Paris: OECD Publishing; 2021.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2021-2025). Seoul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2020.

Seo HJ, Ahn TY, Lee HJ.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lans for unmarried mother-father families in Gyeonggi Province. Suwon (Korea): Gyeonggi Institute for Women and Family; 2010.

Seo MR.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master's thesis]. Busan (Korea):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ong-A University; 2010.

Seong JH, Kim HJ, Lee MJ, Park YM.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in interaction with public service professional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during pregnancy, birth and child caring. J Korea Contents Assoc 2016;16:404-16.

Statistics Korea. 2024 Population dynamics survey results.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2024.

Stone D.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2.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Egypt): UNFPA; 199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ealth and human rights: Key facts. Geneva (Switzerland): WHO Press; 2015.